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, 저수율 51.5% 가뭄 비상...양수저류·직접급수 총력

✎ 김준혁(=호남) 기자 | ⓒ 승인 2026.08.11 17:41

누적 강수량 평년 76%...대각저수지 영산강 양수·봉산·백연지구 대체 수원 공급
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 점검...농업인 물꼬 관리·용수 절약 당부

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[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]

[폴리뉴스 김준혁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나주시(지사장 류화열)는 11일 기준 나주시 누적 강수량이 650.0mm로 평년의 76% 수준이며 지역 평균 저수율은 51.5%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 특히 일부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과 지역별 용수 공급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.

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하천과 기존 용수간선을 활용한 양수저류 및 직접급수를 실시하고 있다. 대각저수지는 영산강에서 양수저류를 진행하고 봉산·백연지구 등은 대체 수원을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.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치저수지와 대각저수지의 가뭄 대응 및 용수 공급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추가 용수 확보 방안도 점검했다.

나주시사는 농업인들에게 물고 관리와 불필요한 용수 사용 자제 등 농업용수 절약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.

류화열 나주시사장은 "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"이라며 "양수저류와 대체급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농업인의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

김준혁(=호남) 기자 junjun6816@naver.com